

윤리와 사상 정답

1	⑤	2	②	3	①	4	①	5	①
6	③	7	②	8	⑤	9	①	10	③
11	④	12	⑤	13	③	14	②	15	④
16	⑤	17	③	18	④	19	③	20	④

윤리와 사상 해설

1. [출제의도] 키르케고르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 이해하기

가상 대화의 선생님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키르케고르이다. 그는 실존의 단계를 심미적 실존 단계, 윤리적 실존 단계, 종교적 실존 단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종교적 실존 단계에서 신에게 귀의하기로 주체적으로 결단함으로써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이황, 을은 이이다. 이황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것을 사단으로, 기가 발하고 이가 따르는 것을 칠정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사단과 칠정은 발하는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이는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까닭은 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이황이 주장한 이기호발을 비판하면서 기가 발하고 이가 타고 있다는 것만 옳다고 강조하였다.

3. [출제의도]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데카르트, 을은 스피노자이다.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의심할 수 없는 진리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피노자는 자연이 곧 신이며, 자연의 인과적 필연성을 이성으로 인식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출제의도] 노자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그는 만물의 근원을 도(道)로 보면서, 도에 따라 만물이 극에 달하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에 따르면 도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덕이며, 무위의 삶이 이상적인 삶이다.

5. [출제의도]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정의 윤리의 입장인 칸트, 을은 배려 윤리의 입장인 나딩스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의 정언적 성격을 중시하며 보편화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 원리에 따를 것을 주장하였다. 나딩스는 인간관계의 맥락을 중시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서적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6.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과 스토아학파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 사상가 에픽테토스이다.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쾌락은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그는 고통과 불안의 제거를 강조하였다. 에픽테토스는 만물의 본질이 이성(理性, logos)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연, 신, 인간이 이성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외적인 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므로 변화시킬 수 없으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건에 대한 우리의 내적인 태도임을 강조하였다.

7. [출제의도] 맹자와 순자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성선설의 입장인 맹자는 모든 인간에게 타고난 사단(四端)이 있다고 보면서, 이를 수양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보았

다. 성악설의 입장인 순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의를 좋아하고, 본능적인 욕구를 따르는 존재라고 보면서 본성의 교화를 위한 후천적인 노력을 중시하였다.

8. [출제의도] 동학과 증산교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 을은 증산교의 창시자인 강일순이다. 최제우는 하늘님을 자각하고 바르게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 존중을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었다. 강일순은 하찮은 도움이라도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상 사회 실현을 위해 최제우는 마음을 지키고[守心] 기운을 바르게 할 것[正氣]을 강조하였고, 강일순은 원한을 풀고 상생할 것[解怨相生]을 강조하였다.

9. [출제의도] 흄과 칸트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흄, 을은 칸트이다. 흄은 도덕적 선악의 판단에서 유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덕적 선악의 판단에서 이성(정념)에 봉사하는 것 외에 어떠한 역할도 수행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칸트는 의무 이행을 통해서만 자연적 경향성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의무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기 자신의 행복을 고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다.

10. [출제의도] 흄스와 로크의 사회계약론 비교하기

(가)의 갑은 흄스, 을은 로크이다. 흄스는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규정하였다. 또한 그는 자기 보존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권리의 향유가 불완전하다고 보았다. 그는 정부 수립의 조건은 재산권의 보장 및 안전의 확보에 있으며, 그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1. [출제의도]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 을은 소크라테스이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를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윤리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상대주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지덕복(知德福)의 합일을 강조하면서 덕은 참된 삶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소피스트의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비판하면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윤리 규범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12. [출제의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에게 반론할 내용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는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악을 행할 수 있다고 보면서 앎이 실천으로 나타나도록 의지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덕은 참된 삶에서 나오며 악덕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였다.

13.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교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을은 스콜라 철학자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초기에 플라톤주의적 관점에서 성서를 이해하였으나 점차 플라톤의 가르침을 넘어선 진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진리인 신이 실존적으로 만나야 하는 인격적 존재임을 강조하였다. 아퀴나스는 신학이 전달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철학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철학에 대한 신학의 우위를 강조하였다. 또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14. [출제의도] 주희의 사상 이해하기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주희이다. (나)의 퍼즐 속 가로 낱말 (A)는 격식이고, 가로 낱말 (B)는

제물이므로 세로 낱말 (A)는 ‘격물’이다. 주희는 우주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면서, ‘격물’의 의미를 인간과 사물 각각에 내재한 하늘의 이치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5. [출제의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상 비교하기

갑은 고전적 자본주의 사상가인 스미스, 을은 공산주의 사상가인 마르크스이다. 스미스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였으며, 개인의 이윤 추구가 국가 부의 증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는 계급 간의 대립을 가져오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6. [출제의도] 원효와 지눌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원효, 을은 지눌이다. 원효는 특정 종파의 교리를 고집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수행에 정해진 형식이나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지눌은 돈오 점수와 정혜쌍수를 주장하였다. 돈오점수는 단번에 진리를 깨친 뒤 번뇌를 차차 소멸시켜 가야 한다는 것이고, 정혜쌍수는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17. [출제의도] 벤담과 밀의 입장 비교하기

갑은 벤담, 을은 밀이다. 벤담은 공동체의 이익을 구성원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보면서, 쾌락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밀은 쾌락에는 양적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 차이도 존재하며, 지성적 능력을 발휘하여 쾌락의 질적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8. [출제의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상 비교하기

(가)는 자유주의, (나)는 공동체주의이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가치관 설정에 국가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의 전통과 유산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또한 좋음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국가가 제시하고 권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9. [출제의도] 노직, 왈처, 롤스의 분배 정의 입장 비교하기

(가)의 갑은 노직, 을은 왈처이고, (나)의 사상은 롤스이다. 노직은 소유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세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왈처는 각 영역을 주도하는 가치는 다르므로 각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단일한 분배 기준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롤스는 분배 정의에서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불평등 허용 조건으로 모든 사람의 이익 증대를 제시하였다.

20. [출제의도] 정약용의 사상 이해하기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그는 성리학의 성즉리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기호(嗜好)로 파악하였다. 그는 기호에는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형구의 기호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있는 기호로서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았다. 영지의 기호는 인간만이 가진 기호로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보았다.